

일본의 통신사업자 구조 조정

NTT는 지난 96년 12월 우정성과 회사의 구조 재편 기본 원칙에 합의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NTT가 100% 자본 참여를 하게 되는 순수지주회사로의 재편 계획은 우정성에 의하여 제의되었다. 합의 내용 중에는 NTT가 완전한 국제 사업자로서 탈바꿈하여 국제 서비스 사업 참여를 허용하도록 입법 조치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발표 이후, NTT는 그 계획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직 재편을 위한 경영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정 조사연구실 연구원

재편 정책

1996년 3월 29일 “규제철폐 촉진 프로그램”에 관한 내각의 결정에 기초하여, 우정성은 국내사업자인 NTT에 적합한 기업 구조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NTT를 순수지주회사로 하여 그 산하에 장거리 통신회사와 두 지역통신회사로 분할, 재편한다.
- 장거리 통신회사는 민영화할 것이며, 현간(Inter-Prefectural)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 지역통신회사는 특수회사화 할 것이며, 행정 경계상의 현내(Within a Prefecture)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들의 관할권내의 일반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 지역은 동일본 및 서일본의 동/서 두지역 통신회사에 일임된다.
- 지주회사는 장거리 통신회사, 지역통신회사의 주식 모두를 보유하고, 기반기술의 연구개발을 일원적으로 추진한다.
- 사업중심의 연구개발은 새 장거리 통신회사와 지역 통신회사가 관할한다.
- NTT는 국제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해외통신사업회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한다.

- 새 장거리 통신회사와 지역통신회사 간에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둔다.

우정성은 재편 계획의 실시를 위해서 관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부처간 협조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까지 세가지 분야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첫번째는 지주회사의 구조이다. 이 구조는 독점금지법에 의해서 관리되며 우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방향을 모색해 왔다.

두번째는 새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인데, 이는 재무부 관할하의 상법에 의해서 관리된다.

마지막으로는 기업세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세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다. 우정성은 NTT 분할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약2조엔)를 이번엔 한해 과금하지 않으며, 또한 지역통신회사의 분할로 적자가 예상되는 서일본 NTT와 흑자가 예상되는 동일본 NTT의 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연합납세제의 실시 등 특례조치를 제안했다.

NTT 재편성의 실시를 위하여 독점금지법, 상법 등의 관계법 개정안을 97년 1월에서 3월에 열리는 통상 국회에 제출하였다.

순수지주회사 구조의 매력

NTT는 재편 계획에 우선적으로 동의하였는데, 이

는 순수지주회사 구조의 도입이 일반 주주의 권리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NTT의 분리와 분할에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그 계획은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제 통신서비스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997년 1월에 이미 NTT는 국제 통신시장에 진입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제 통신시장에의 적극적 진출, 광범위한 연구개발 자원의 활용, 그리고 장래를 위한 자본투자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 전략은 전 세계 주요도시에 서비스 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다국적 정보시스템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 사업에의 진출 모색

첫 단계로 프레임릴레이, Managed Bandwidth, 그리고 고성능 인터넷프로토콜 서비스와 같은 고품질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다국적 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

는 것은 이들 전 세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고속망을 연결하는 것이다.

NTT는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세계 주요 시장에서의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응용서비스가 완성 되는 대로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서비스망에 그들의 노드와 임대회선을 설치 하려는 의도이다. 그 다음 단계로는 국제 통신서비스 시장에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NTT법,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이다.

1997년 3월 25일 NTT는 다국적 기업과 아시아의 소비자들을 위한 전 세계 서비스시대를 열기 위한 순수 자회사를 홍콩, 싱가포르에 그리고 필리핀에는 합작 벤처기업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기본 통신망 뿐만 아니라 첨단 네트워크도 계속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MSC Project> (Multimedia Super Corridor Project)와 같은 진보된 멀티미디어 시스템 개발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 MSC Project >란?

21세기를 대비하여 멀티미디어를 축으로 하는 컴퓨터통신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 국내 프로젝트이다. 1996년 4월 이후 NTT는 MSC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다. MSC 프로젝트는 멀티미디어와 정보기술(IT)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 독특하다.

300평방km에 달하는 사이트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쿠알라룸푸르 City Centre, 말레이시아의 새 정부청사, Putrajaya, 그리고 신국제공항을 포함하게 된다.

이 사이트의 중심부에는 "IT City"로 알려진 시범적인 도시가 건설된다. IT City는 정보기술회사와 서비스 산업의 미래의 보급자리로서, 말레이시아의 IT 산업과 멀티미디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VISION 2020」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MSC 프로젝트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와 고도 기술사회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MSC 프로젝트의 핵심은 고도의 통신 시스템 개발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에는 전자서명법과 전기통신법률의 개정, 그리고 외국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강력한 유인 동기의 제시가 요구된다.

협력 관계

이들 새로운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NTT는 이미 여러 기업들과 손을 잡았다. 이것은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광(光)화 인프라 구축, 그리고 ATM 교환기와 같은 세계적 첨단 통신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제조 회사 및 소프트웨어 회사들과의 기술제휴를 위한 것이다.

향후 전망

NTT 재편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TT 재편이후 넘어야 할 큰 산은 NTT 네트워크와 국내 경쟁 업체간의 상호 접속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접속료 부과 체계를 제시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